

# 한국 노인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 메타분석

## Gender Difference of Subjective well-being of Older Adults: A Meta Analysis

김여진\*, 임연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Yojin Kim(k96jin@hallym.ac.kr)\*, Yeon Ok Lim(marialim@chol.com)\*\*

###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국내 연구를 분석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를 밝히고자 노인 대상의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된 2000년 이후부터 2013년까지의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구를 통합하여 분석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정기준에 적합한 총 74개의 논문을 대상으로 성별차이의 효과크기와 가중평균을 계산하고, 논문특성에 따른 분석을 위해 SPSS에서 메타분석 macro를 활용한 메타분석과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의 효과크기( $es = .1157$ )는 95%의 신뢰구간 .0528에서 .1787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조절변인으로서의 논문의 특성에 따라 성별효과크기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다수의 연구가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성별차이와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논문은 극히 일부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주관적 안녕감 | 노인 | 성별차이 | 메타분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meta-analysis of the research studies between the year 2000 and 2013 on the gender difference of the subjective-welling of Korean older adults. 74 research studies that meet the criteria are analyzed with SPSS and Meta-analysis macros.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elder men are better off in terms of subjective well-being ( $es = .1157$ ,  $CI_{95\%} .0528-.1787$ ) than women. No moderating effects are found. Few studies examined the interaction between the gender difference effect and main factors such as health and social relationship that affect subjective well-being. Based on th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 **keyword** : | Subjective Well-being | The Elderly | Gender Difference | Meta-analysis |

## I. 서론

한국사회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에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가 되면서[1], 서구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2])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노인의 노년기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3]. 그리하여 지난

\* 이 논문은 한림대학교 특성화사업비(HRF-S-21)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5년 06월 10일

수정일자 : 2015년 08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5년 08월 23일

교신저자 : 임연옥, e-mail : marialim@chol.com

10여 년간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각 분야별로 제안하였으나, 노화의 개념이나 성공적 노년이 과연 무엇인가 등에 관한 이론적 합의점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4].

노인의 삶에 대한 연구들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이다. 노인의 삶을 연구할 때, 신체적 건강, 경제적 요건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만족감, 행복감 등의 주관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여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두 가지의 측면을 함께 측정하는 지표의 개발이 시도되어 왔다[5]. 그러나 한편으로는, 객관적 지표보다는 주관적 지표에 더 무게를 두고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자도 여전히 있어 왔다[6]. 만족감과 같은 주관적 요건이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요건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7].

주관적 안녕감은 정서적 안녕감 (affective well-being)과 인지적 안녕감 (cognitive well-being)으로 나누어 보며, 정서적 안녕감은 즐거운 감정을 경험한다거나 부정적 정서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인지적 안녕감은 인지적으로 어떻게 본인의 삶을 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8]. 또한 주관적 안녕감과 동일하게 또는 하위영역으로 언급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도 (life satisfaction)<sup>1</sup>, 행복감 (happiness), 긍정적 정서 (positive affect),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시간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 등에 따라 다르게 언급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하나의 개념을 다양하게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고 측정하여 연구했다고 볼 수 있다. 개념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것은 그것이 평가이든, 정서이든, 어떤 시점이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본인의 주관에 근거한 것이며, 부정적인 정서나 평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다양하게 측정이 될지라도 주관적으로 본인의 삶이 안녕한 것인가를 의미한다는

넓은 차원의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9]. 다만 측정에서 다양한 척도로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개념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년기의 삶에서 주목받는 것 중 하나는 성별 차이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온 주제이기도 하다[10]. 성별차이의 분석은 이것이 정책적인 함의점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인직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 성별차이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의 삶에서 성별 차이는 삶의 경험 이 축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11] 생애주기 동안 축적된 경험의 차이가 다방면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별 자체만의 비교보다는 복합적인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성별비교에서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의 복합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 실질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도 기초적인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메타분석은 개별적으로 수행된 실증적인 연구들의 결과를 통합하고자 하는 통계적 분석방법이다[12]. 같은 주제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을 통계적 기법으로 하나의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질적인 분석에서 한결음 나아가서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의 반복적인 결과로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메타분석은 임상연구 또는 프로그램 평가 연구의 일반화에 대부분 활용하고 있지만, 특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실시한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고, 그 연구들 중 일부 성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만, 성별차이에 대해 일관적이지 않다. 따라서, 다수의 실증연구의 결과에서 드러난 성별차이를 메타분석이라는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면, 지난 10여 년간의 결과를 통합하여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연구들에서 다루어진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해 연구한 문헌을 근간으로 아직까

1 다수의 연구에서 생활만족도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로 통일시켜 기술하겠다.

지 통합 분석되지 않은 성별차이를 메타분석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및 측정도구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10], 인지적인 판단과 정서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개념이며[13], 삶의 만족도, 행복감, 긍정적 정서, 심리적 안녕감과 동일하게 언급되기도 한다. 삶의 만족도는 당장 직면해 있는 상황보다는 경험의 축적을 근간으로 하는 삶에 대한 평가적 관점이다[14]. 행복감은 평가적이지 않으며, 삶의 만족도에 비해 변화 가능성이 더 높은 개념이고, 긍정적 정서는 환경에 대해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변화 가능성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보다 높다[13].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인지적, 정서적 상태로 정의 내리고 있다[11].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삶의 질의 한 영역으로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을 삶의 대한 평가, 정서, 그리고 심리적 변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15].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삶의 질의 하위변인으로서 주관적 삶의 질을 논의하고 삶의 만족을 측정하기도 한다[5][16].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성공적 노화의 관점에서 노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다른 연령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대부분의 연구에서 젊은 층보다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7][18]. 이에 대해 Uloa, Motter, Sousa-Puza[17]는 연구대상자들의 국가의 경제적 지위와 대상자들의 코호트 효과 영향으로 젊은 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안녕감의 종단적 변화의 분석에서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다른 연령보다 높은 경향이 있으나 70세 이상의 그룹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면밀한 분

석이 필요한 것이다[19].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국내 척도로는 최성재의 노인생활만족도[21]와 윤진의 노인생활만족도 척도[20]가 있다. 최성재의 노인생활만족도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전반적인 주관적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며, 윤진은 MUNSH (Memorial University of Newfoundland Scale of Happiness)와 Neugarten, Havighurst, 와 Tobin[22]의 생활만족도 척도, PGCMS 등을 기반으로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경험으로 구성된 생활만족도 측정도구를 만들었다[23]. 이 척도들은 기존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척도를 근간으로 한국적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그 외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국내의 도구들을 살펴 보면, Diener의 삶의 만족도 측정 (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24],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GCMS)[25], Neugarten 외[22]의 생활만족도 등은 삶의 다면적인 면에 대한 평가를 측정한다. Ryff는 심리학이론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능들의 다면들을 중심으로 안녕감 (well-being)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고[26], 정서적인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인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ale (PANAS)[27]는 즐거움, 고통, 슬픔, 불안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한다.

규모가 큰 사회조사와 같은 연구에서는 한 문장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나 행복감을 질문하여 측정하거나 가족, 경제, 건강 등의 영역별 만족도를 질문하여 영역별 또는 총합을 계산하여 안녕감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한다[14].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정의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측정방법도 다양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14], 이에 대해 Diener 외[9]는 주관적 안녕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환경의 변화에 잘 적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의 노화 적응의 맥락에서 노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8].

## 2. 주관적 안녕감과 성별차이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는 복잡한 맥락의 고려를 필요로 하지만, 한편으로 노년학 분야에서는 성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비교는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Pinqart와 Sorenson[10]은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에 돌봄의 욕구가 여성노인에게 높아지고, 이러한 높은 돌봄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여성들이 어려움을 더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한다. 경제적으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별차이의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남성노인보다 낮은 결과를 보이는 반면[29], 일부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다[30]. 서양의 경우, 젊은 층에서는 여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는데 중년 이후부터 남성들의 주관적 안녕감이 오히려 더 높아진다는 연구[31]가 있는 반면,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그 차이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진다는 메타분석 결과를 보고한 연구도 있다[10]. 그 외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 자체보다는 영향 요인을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연구가 다수이다. 해외의 연구 중 동양의 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이나 홍콩의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32][33] 남성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보다 높을 것이라는 Pinqart와 Sorenson[10]의 논의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보다 높은 현상의 이론적 근거는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노년기에 남성노인은 은퇴와 함께 역할이 바뀌면서 바뀐 역할이나 사회적 관계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면, 여성노인은 생애주기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이러한 관계가 노년기에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32].

이와 같이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는 노년학에서 중요한 변인으로서 강조하고 연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보여 주지 않았으며, 문화적인 맥

락과 사회적인 맥락, 또는 심리정서적인 맥락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7],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과연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 것인가부터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 3.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 영향요인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으로 George[14]는 기존의 횡단연구들의 검토를 근간으로 크게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 사회통합,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지지, 그리고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위의 문헌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특히 젊은 층에 비해 수입 또는 소득이 노인에게 더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되었다. 건강은 장애, 객관적 건강, 그리고 본인의 관점에서 보는 주관적 건강으로 나누어 보는데, 기존 연구에서는 주관적 건강을 노인인구에게는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회통합은 개인차원에서는 종교활동 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을 의미하는데,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청년이나 중년보다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더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지지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연구에서 다수 분석하는 영향요인으로 결혼여부,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중 결혼여부,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노인 인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의 관계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도 사회적 관계망 중 사회적 지지가 노인의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34]. 마지막으로 심리사회적 자원으로는 자아통제감이 있는데, 노년기에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같은 객관적 상황과 주관적 안녕감을 매개하는 역할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연관이 있었으며, 국내 문헌에서도 다수 개별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국내 문헌에서 다루어졌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영향요인들을 성별과의 상호작용과 맞물려 모두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는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상의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의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가?

둘째, 논문 특성에 따라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의 효과크기가 다른가?

셋째,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성별차이와의 상호작용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 III. 연구방법

#### 1. 자료의 수집, 선정 및 코딩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수로 한 학술논문(Korean Index Citation 이후 KCI 등재 및 등재후보지)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노인, 주관적 안녕감, 생활만족도, 삶의 만족도,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복지감, 행복감을 검색어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학술정보서비스 (KISS), DBPIA의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논문을 검색하여 수행하였다.

검색한 후 1차 자료 선정 기준은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대상의 분석을 한 연구, 둘째, 자료수집은 2000년부터 2013년 중에 실시한 연구, 셋째, 남녀 모두를 포함한 연구이다. 이때 연령이나 자료수집년도가 불분명하거나 척도에 대한 신뢰도의 제시가 없을 경우 제외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성 비교 연구와 질적 연구는 제외하였다. 횡단연구로 한정하되 종단연구의 경우 시간의 변화보다는 1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만을 선택하였다. 1차 자료 선정 기준에 따라 총 228편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2차 자료 선정 기준은 분석에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비교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는가이다. 즉,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또는 성별차이의 t검증값, 성별과 종속변인의 상관관계계수, 회귀분석 계수 등 성별차이의 효과크기 변환이 가능한 통계치를 제시한 연구를 선택하였다. 동일자료를 분석한 논문들 중

에서는 연구자의 협의를 통해 한 개의 논문만 선택하였다. 이러한 검증절차를 걸쳐 최종적으로 총 74편의 논문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자료는 일련번호, 저자, 논문제목, 논문게재연도, 자료수집연도, 게재학술지명, 학술지분야, 자료출처, 표집방법, 척도, 남자노인과 여자노인 각각의 표집수와 총표본수, 주관적 안녕감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통계치, 성별 외의 주요독립변인 등을 입력하였으며 주관적 안녕감을 여러 하위분야로 측정하거나 하위표본이 있을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입력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연구자와 노년학분야 연구자 2명이 자료를 입력하였고 무작위로 10%를 추출하여 연구자간의 신뢰도를 퍼센트 일치도로 계산한 결과 77.8%의 일치도를 보였다.

#### 2. 측정도구 및 조절변인

주관적 안녕감의 측정도구는 기존의 척도에서는 윤진의 생활만족도[21]와 최성재의 노인생활만족도[20]를 각각 15편, 14편에서 사용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외국척도로는 Havinghurt와 Neugraten의 척도를 근간으로 한 Life Satisfaction Index-Z, Life Satisfaction Index-A를 사용한 논문이 10편, PGCMS 5편, SWLS 5편, MUNSH 2편, 그리고 GWB, Life Satisfaction for Elderly Scale, PANAS (긍정적 정서) 등이 있다. 1문항으로 동년배와 비교하는 문항을 사용한 연구논문 4편과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한 문항을 사용한 연구논문 4편이 있다. 그 외 다수(16편)의 연구는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절변인으로는 논문의 특성들로 출간연도, 표집의 연령기준, 학술지분야, 척도성격, 척도출처, 표본추출방법, 그리고 표본수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메타분석에서 조절효과분석은 연구수준의 조절변인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다[35].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구자체의 특성에 한하여 조절변인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술지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분야 분류에 의해 분류하였으며, 국내 노년학의 대표학술지인 한국노년학이 사회복지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그 외 사회과학, 간호학/보건학, 그리고 기타 (체육학, 생활과학, 공

학 등)으로 분류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확률표집과 비확률표집 중 할당표집과 유의표집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연령기준은 표본의 표집 기준으로, 학술적으로는 다수의 연구가 65세로 하고 있지만, 노인대상의 정책에서는 60세 기준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36]. 60세를 기준으로 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척도의 성격은 생활만족도 측정도구에 대한 논의[37]에서 구분하였듯이 단일차원의 척도와 다차원의 척도로 구분하였고, 척도의 출처는 기존척도, 1문항척도, 그리고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로 분류하였다.

### 3. 통계분석 방법

메타분석을 위해서 Exel 프로그램과 SPSS V.20에 메타분석용 macro[38]를 활용하여 효과크기와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동질성 검증을 위해서는 Higgins[39]의  $I^2$ 값 공식에 준하여 계산해 주는 스프레드쉬트 통계프로그램[40][41]을 활용하였다.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의 효과크기와 가중평균을 계산하였다. 각 연구마다 표본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정하여 분석하는 SPSS macro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무선효과모형(random-effect model)을 선택하였다. 무선효과모형은 모수가 임의로 다르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는 모형이다[38]. 노인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무선효과모형을 선택하였다.

동질성 검증은 Cochran의 Q값과 Higgins의  $I^2$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I^2$ 의 값이 75%이상이면 이질성이 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질성 검증에서 귀무가설이 부정되면, 연구간 변동량을 고려하여 무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동질성검증으로 무선효과모형이 적절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출판편향의 분석을 위해서는 Egger의 선형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논문특성, 즉 조절변인의 분석을 위해서는 메타분석용 macro[38]를 활용하여 변인이 범주형일 경우에는 하위그룹의 평균크기를 분석하는 메타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이 연속형일 경우에는 무선효과모형으로 메타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대상연구들의 특성

분석대상연구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논문 편수는 74개로 주관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연구는 연도별로 볼 때 성별차이가 꾸준히 분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기준은 65세가 54.1%이며, 연도별로 교차분석을 했을 때에도 60세와 65세 기준의 연구의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sup>2</sup>, 고령인구를 구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42]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학술지 분야의 분포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와 간호/보건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31.1%), 척도의 성격은 전반적인 생활만족을 측정하는 일차원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가 73.0%이며, 기존의 척도를 연구한 논문은 71.6%, 그리고 75.7%의 연구가 비확률 유의표집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수의 평균이 비록 705.5명이지만, 중위수는 268명이며 71.6%의 연구가 400명 이하를 표본수로 하고 있다.

표 1. 분석대상연구들의 특성(N=74)

| 구분              |        | 빈도(%)    | 구분    |           | 빈도(%)     |
|-----------------|--------|----------|-------|-----------|-----------|
| 출간 연도           | 2002   | 4(5.4)   | 연령 기준 | 60세       | 34(45.9)  |
|                 | 2003   | 3(4.1)   |       | 65세       | 40(54.1)  |
|                 | 2004   | 5(6.8)   | 척도    | 일차원       | 54(73.0)  |
|                 | 2005   | 5(6.8)   |       | 성격        | 다차원       |
|                 | 2006   | 4(5.4)   | 척도 출처 | 1문항       | 8(10.8)   |
|                 | 2007   | 7(9.5)   |       | 기존척도      | 53(71.6)  |
|                 | 2008   | 10(13.5) |       | 저자개발      | 13(17.6)  |
|                 | 2009   | 4(5.4)   |       | 확률표집      | 15(20.3)  |
|                 | 2010   | 6(8.1)   | 표본 추출 | 비확률할당표집   | 3(4.1)    |
|                 | 2011   | 12(16.2) |       | 비확률유의표집   | 56(75.7)  |
|                 | 2012   | 8(10.8)  |       | 200명이하    | 16(21.6)  |
|                 | 2013   | 6(8.1)   |       | 200-400이하 | 37(50.0)  |
|                 | 학술지 분야 | 사회복지     |       | 23(31.1)  | 400-600이하 |
| 그외 사회과학         |        | 14(18.9) | 표본수   | 600초과     | 14(18.9)  |
| 간호/보건           |        | 23(31.1) |       | 평균        | 705.5     |
| 기타 <sup>a</sup> |        | 14(18.9) |       | 중위수       | 268       |
|                 |        |          |       | 범위        | 58-10115  |

a.체육, 생활과학, 공학 등

### 2.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와 동질성 검증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의 효과크기는 [표 2]와 같으며, 성별차이 효과크기의 forest plot은 [그림 1]과 같

2 65세기준 연구가 2002-2005년까지 47.1%, 2006-2010년은 58.1%, 2011년이후는 53.8%이다.

다.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의 효과크기를 무선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여성노인보다 높았다 (ES = .1157, 95%CI, .0528-.1787). 동질성 검증의 결과값인 Q값과 I<sup>2</sup>의 값이 성별차이 효과값의 이질성의 정도가 높음을 보여주어 무선효과모형에 의한 분석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표 2. 성별차이 효과크기 및 동질성 검증

|      | k  | 남자 N     | 여자 N  | ES      | SE    | 95% 신뢰구간       |       |
|------|----|----------|-------|---------|-------|----------------|-------|
|      |    |          |       |         |       | 하한             | 상한    |
| 효과크기 | 74 | 21150    | 30551 | .1157   | .0321 | .0528          | .1787 |
|      |    | Q        | df(Q) | p-value |       | I <sup>2</sup> |       |
| 동질성  |    | 765.6319 | 73    | .000    |       | 90.47          |       |



그림 1. 성별차이 효과크기 forest plot

출판편향을 분석하기 위해 Egger의 선형회귀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절편이 .105이며 t값이 1.213(p=.230)으로 유의하지 않은 값으로 출간오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논문특성에 따른 평균효과크기

분석대상 논문들의 특성에 따른 하위그룹분석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기준이 65세인가와 60세인가를 조절변인으로 하고 탐색한 결과, Q = .0886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 연령기준에 따른 성별효과크기의 차이는 동질적이었다. 표집방법의 연령기준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학술지의 분야 (Q = .7409), 척도의 성격 (Q = .0004), 척도의 출처 (Q = 2.4739), 그리고 표본추출의 방법 (Q = 1.4329)에 따른 성별효과크기의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동질적이라는 영가설을 받아들일게 된다.

표 3. 논문특성에 따른 평균효과크기 분석

| 연구변인  | k               | ES  | SE  | 95%신뢰구간 |        | p     | 동질성검증          |                |
|-------|-----------------|-----|-----|---------|--------|-------|----------------|----------------|
|       |                 |     |     | 하한      | 상한     |       | Q <sub>w</sub> | Q <sub>B</sub> |
| 연령 기준 | 60세             | .34 | .13 | .07     | .0046  | .2607 | .04            | 31,382         |
|       | 65세             | .40 | .10 | .06     | -.0112 | .2237 | .08            | 45,669         |
| 학술지분야 | 사회복지            | .23 | .14 | .08     | -.0173 | .2902 | .09            | 10,097         |
|       | 그외 사회과학         | .14 | .13 | .10     | -.0696 | .3265 | .20            | 7,088          |
|       | 간호/보건           | .23 | .06 | .08     | -.0989 | .2224 | .45            | 48,449***      |
|       | 기타 <sup>a</sup> | .14 | .16 | .10     | -.0334 | .3602 | .10            | 10,172         |
| 척도 성격 | 일차원             | .54 | .12 | .05     | .0171  | .2206 | .02            | 64,954         |
|       | 다차원             | .20 | .12 | .08     | -.0480 | .2816 | .17            | 12,192         |
| 척도 출처 | 1문항             | .08 | .16 | .13     | -.0874 | .4099 | .20            | 2,353          |
|       | 기존 척도           | .13 | .25 | .10     | .0517  | .4497 | .01            | 7,568          |
|       | 저자 개발           | .53 | .08 | .05     | -.0259 | .1781 | .14            | 66,966+        |
| 표본 추출 | 확률 표집           | .15 | .22 | .09     | .0345  | .3970 | .02            | 5,402          |
|       | 비확률 표집          | .59 | .09 | .05     | -.0067 | .1872 | .07            | 72,134         |

a.체육, 생활과학, 공학 등 + p<.10, \*\*\* p<.001

연속 변인의 증감에 따른 효과크기의 증감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메타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도가 뒤로 갈수록 부적 방향의 기울기를 나타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전체표본수의 크기가 클수록 효과크기가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시기와 표본수의 크기에 따른 성별차이의 효과크기의 차이가 없다는 분석 결과이다.

표 4. 성별차이 효과크기의 연속형 조절변수

|      | 구분   | B                      | SE    | 95%신뢰구간  |         | Z      | p     |
|------|------|------------------------|-------|----------|---------|--------|-------|
|      |      |                        |       | 하한       | 상한      |        |       |
| 출간연도 | 절편   | 10.66                  | 20.50 | -29.5202 | 50.8452 | .5201  | .6030 |
|      | 출간연도 | -.01                   | .01   | -.0253   | .0148   | .5201  | .6069 |
|      | 모델   | R <sup>2</sup> = .0010 |       |          |         |        |       |
| 표본수  | 절편   | .11                    | .04   | .0341    | .1839   | 2.8527 | .0043 |
|      | 표본수  | .00                    | .00   | .0000    | .0001   | .4033  | .6868 |
|      | 모델   | R <sup>2</sup> = .0013 |       |          |         |        |       |

### 3.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과 성별비교 분석

주관적 안녕감의 영향요인 중 인구학적 변인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관련 변인을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연령, 학력, 수입, 지역, 거주형태 등의 인구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에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41편, 그리고 통제변인으로 분석한 연구는 27개가 있다. 건강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일상수행능력 등과 같은 객관적 건강을 분석한 연구는 26편, 주관적 건강을 분석한 연구는 24편, 그리고 건강관리 행위와 같은 건강관련 변인을 분석한 연구는 11편이다. 객관적 건강 또는 주관적 건강을 통제변인에 포함한 연구는 12편이다. 경제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23편), 자녀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사회적 관계 (25편)도 주요 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자존감, 우울, 무력감, 성격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 (18편)과 스트레스나 대처 등의 정서관련 변인 (6편), 부양의식, 인지연령 등의 가치관 (5편), 영성 (4편), 성인식, 성태도와 같은 성관련 변인 (6편) 등을 주요변인으로 다루었다. 그 외 생활시간 (1편), 주거환경 (4편), 장애 (3편), 노후준비 (1편) 등도 주요영향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성별변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는 소수이다. 독립변인과 성의 상호작용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한 연구는 1편이다. 독립변인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14편, 성별과 독립변인의 상관관계분석

은 9편,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한 연구는 8편이다. 여성과 남성의 비교를 논문의 키워드로 제시한 논문은 4편에 불과하듯이 성별비교를 주요 변인으로 제시한 논문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최근 10여년 동안 성공적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성별 차이의 비교 분석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지라도, 우선 성별간의 차이가 있는지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에서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연구한 논문을 중심으로 과연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적으로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남성보다 낮았다. 성별효과 크기의 동질성 검증을 할 때 표집의 연령구분(60세, 65세), 학술지 분야 (사회복지, 그 외 사회과학, 간호/보건), 주관적 안녕감의 척도의 성격 (일차원, 다차원), 주관적 안녕감의 척도출처 (1 문항, 기존척도, 저자개발척도), 표본추출법 (확률표집, 비확률표집), 출간연도, 표본수 등에 따라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러한 연구 특성별로는 성별의 효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75.7%가 비확률 유의표집방법으로 수집한 자료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서 유의를 해야 하는 한계점을 안고 있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확률표집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조사나 실태조사와 같은 대규모의 연구 외에는 유의적 표집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할당표집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3개의 연구만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점은 추후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으로 지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논문의 특성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 관점을 명시한 논문들은 17편이며 이 중 11편이 성공적 노화 담론과 연결시킨 활동이론 및 연속이론을 분석의 기본 관점으로 언급하였다. 척도의 다양성은 이론적 관점의 다양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총 74편의 논문 중 23%정도만 이론적 관점을 논의한 것은 다수 연구들이 경험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물론 경험적인 분석 자체가 의미가 있으나, 경험적 연구의 축적을 통한 이론적 관점의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113]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의 연구의 이론축적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한국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10여년간의 연구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독립변인들은 배제하고 성별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좀더 폭넓게 독립변인들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는 성별차이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이는 본 연구의 한계이다. 또한 시기적으로 2014년도까지 포함하지 못한 것이 아주 최근의 자료를 놓친 것이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변화와 노년학의 연구에서 중요한 시점이 2000년을 기점으로 10여년 이상의 연구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는 매우 복잡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영향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 요인을 집대성하는 작업은 매우 복합적인 분석을 요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비록 독립변인 또는 통제변인으로서 성별에 대한 차이는 분석을 하였으나, 주관적 안녕감의 성별차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과 성별차이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별차이의 분석이 다른 독립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된 논문이 아직까지는 소수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분석 속에 성별과 다른 변인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작업을 할 때, 성별차이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실천적, 정책적 제언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 노년학, 사회학, 간호학, 그 외 다른 학문분야에서 각각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 다학제간의 교류를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연구를 실현하면 새로운 이론의 정립 또는 기존의 이론의 집대성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예상하는 바이다.

위와 같은 이론적 또는 학문적 함의점 외에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점은 지난 10여 년간의 연구분석에서 한국 여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은 남성노인의 주관적 안녕감보다 낮다는 결과에 주목하여 찾아야 할 것이다. 주관적 안녕감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노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 전반적으로 젠더평등실현을 위해서는 여성복지법제를 개선해야 하며 특히 여성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114],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에 대한 노령효과와 젠더효과를 국제비교 분석한 연구에서 한국 여성노인의 빈곤을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전반에서 젠더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115]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성노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노인 대상의 경제, 노동, 보건 정책을 수립할 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수적임이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이 다.

## 참고 문헌

-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10.
- [2] J. Rowe and R. Kahn, "Successful aging," *Gerontologist*, Vol.38, No.2, pp.433-440, 1998.
- [3] 최은영, 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회 연구동향: 한국노년학회지 게재논문의 '노인'의 개념과 주제분석",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65-185, 2012.
- [4] 안정신, 정영숙, 정여진, 서수균, T. M. Cooney,

- “성공적 노화 연구의 비판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24권, 제3호, pp.35-53, 2011.
- [5] 한형수, “노인의 삶의 질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9권, pp.347-371, 2008.
- [6] 장명숙, 박경숙,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232-266, 2012.
- [7] E. Diener, S. Oishi, and R. E. Lucas, “Personality,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Emotional and cognitive evaluations of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4, pp.403-425, 2003.
- [8] M. Luhman, W. Hofmann, M. Eid, and R. E. Lucas, “Subjective well-being and adaptation to life events: A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02, No.3, pp.592-615, 2012.
- [9] E. Diener, E. M. Suh, R. E. Lucas, and H. L. Smith,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Vol.125, No.2, pp.276-302, 1999.
- [10] M. Piquart and S. Sorenson,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cep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old age: A meta-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Vol.56B, No.4, pp.195-213, 2001.
- [11] 백지은, “노인의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지각 특성이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제20호, pp.137-173, 2010.
- [12] 김동배, 손의성, “한국노인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노년학, 제25권, 제5호, pp.167-187, 2005.
- [13] 임남연, 이화령, 서은국, “한국에서의 Diener의 삶의 만족 척도 사용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9권, 제1호, pp.21-47, 2010.
- [14] L. K. George, “Still happy after all these years: Research frontiers on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Vol.65B, No.3, pp.331-339, 2010.
- [15] 박주연, 심수진, 이희길, *주관적 웰빙 측정 방안*, 통계개발원, 2012.
- [16] 정명숙,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노인복지연구, 제37권, pp.249-273, 2007.
- [17] B. F. L. Ulloa, V. Muller, and A. Sousa-Poza, “How does subjective well-being evolve with age? A literature review,” *Population Ageing*, Vol.6, pp.227-249, 2013.
- [18] 정명숙, “연령과 삶에 대한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제18권, 제4호, pp.87-108, 2005.
- [19] S. Jivraj, J. Nazroo, B. Vanhoutte, and T. Chandola, “Ag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Vol.69, No.9, pp.930-941, 2014.
- [20] 최성재, “노인의 생활만족도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49집, pp.233-258, 1986.
- [21] 윤진, “노인 생활 만족 척도 제작 연구”,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초록, pp.26-30, 1982.
- [22] B. L. Neugarten, “Age groups in American society and the rise of the young old,”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415, No.1, pp.187-198, 1974.
- [23] 정혜정, 김태현, 이동숙,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제20권, 제2호, pp.49-70, 2000.
- [24] E. Diener,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49, No.1, pp.71-75, 1985.
- [25] M. P. Lawton, “Environment and other determinants of well-being in older people,” *Gerontologist*, Vol.4, pp.349-357, 1983.
- [26] C. D. Ryff and C. L. M. Keyes,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69, No.4, pp.719-727, 1995.
- [27] D. Watson and A. Tellegen,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Vol.98, pp.219-235, 1985.
- [28] 석소현,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9권, 제4호, pp.564-574, 2008.
- [29] 김철수, 유성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제25집, 제4호, pp.51-73, 2009.
- [30] 김은경, "농촌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자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Vol.20, No.4, pp.27-36, 2002.
- [31] A. C. Plagnol, and R. A. Easterlin, "Aspirations, attainments, and satisfaction: Life cycle differences between American women and men,"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9, pp.601-619, 2008.
- [32] T. Li and H. H. Fung, "How avoidant attachment influences subjective well-being: An investigation about the age and gender differences," *Aging & Mental Health*, Vol.18, No.1, pp.4-10, 2014.
- [33] H. Okabayashi and G. W. Hougham, "Gender differences of social interaction and their effects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Japanese elders," *Aging & Mental Health*, Vol.18, No.1, pp.59-71, 2014.
- [34] 박영란, 박경순,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노인복지연구*, 제60호, pp.323-352, 2013.
- [35] 황성동, *알기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학지사, 2014.
- [36] 정경희, "백세시대의 노인의 연령기준 관련 논점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180호, pp.16-27, 2011.
- [37] 최혜지, 이영분, "구조적 차원성 탐색을 통한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의 재발견: 최성재의 '노인 생활 만족도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3호, pp.27-49, 2006.
- [38] M. W. Lipsey and D. B. Wilson, *Practical Meta-Analysis*. Sage, 2001.
- [39] J. P. T. Higgins and S. G. Thompson, "Quantifying heterogeneity in a meta-analysis," *Statistics in Medicine*, Vol.21, pp.1539-1558, 2002.
- [40] B. T. Johnson, T. B. Huedo-Medina, and J. M. LaCroix, *Converting Q to I<sup>2</sup>: A spreadsheet*, Storrs, 2010.
- [41] T. B. Huedo-Medina, J. Sánchez-Meca, F. Marín-Martínez, and J. Botella, "Assessing heterogeneity in meta-analysis: I<sup>2</sup> or Q statistic?," *Psychological Methods*, Vol.11, pp.193-206, 2006.
- [42] 이인정,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9권, 제3호, pp.35-50, 1999.
- [43] 김춘길, 박혜자, "복지관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간호학회지*, 제2-19권, 제4호, pp.535-546, 2007.
- [44] 오혜경, 이수경, 석소현, 김귀분, "시설노인의 일상생활능력, 자기효능감 및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연구",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3권, pp.48-56, 2007.
- [45] 권미애, 김태현,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 집단과 경제활동 집단의 비교", *한국노년학*, 제28권, 제4호, pp.1089-1111, 2008.
- [46] 나동석, 김영대, "노인의 성생활과 성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52권, pp.185-203, 2011.
- [47] 석소현, 김귀분, 한국 재가노인의 사상체질별 수면상태, 수면만족도 및 생활만족도 비교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341-350, 2009.
- [48] 이봉진, 홍상욱, "노인의 여가활동이 자아존중감

- 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제8권, 제2호, pp.139-156, 2012.
- [49] 강창욱, 이준우, “청각장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제15권, 제2호, pp.75-91, 2006.
- [50] 윤현숙, 원성원, “노인의 영성과 종교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제30권, 제4호, pp.1077-1093, 2010.
- [51] 소광섭, “도농복합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8권, pp.7-30, 2007.
- [52] 이갑석, 임왕규,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0호, pp.291-306, 2012.
- [53] 김미순, 하춘광, 김효순, “내세관과 죽음준비도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1호, pp.111-136, 2011.
- [54] 석소현, “독거노인과 가족동거노인의 신체적 건강상태, 가족지지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비교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9권, 제4호, pp.564-574, 2008.
- [55] 임창희, “무배우자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11권, 2호, pp.43-65, 2007.
- [56] 서순이, “저소득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근관절건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62-172, 2010.
- [57] 서지혜, 류현숙, “노인의 우울, 생활만족도와 건강증진행위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69-177, 2010.
- [58] 김소향, 이신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에 따른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9권, 제1호, pp.309-327, 2009.
- [59] 이신숙, 김성희, “농어촌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지역발전연구, 제11권, 제1호, pp.23-60, 2011.
- [60] 신수태, 빈성오, “대구지역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2호, pp.23-52, 2011.
- [61] 이호성, “도시노인의 사회적 유대와 생활만족도 연구”, 한국노년학, 제25권, 제3호, pp.123-138, 2005.
- [62] 이인숙, “농촌지역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18권, 제2호, pp.225-233, 2004.
- [63] 박장근, 임란희, 김종도, “노인 복지관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585-598, 2002.
- [64] 최연희, 백경신, “재가 노인의 건강증진 행위, 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 pp.39-48, 2002.
- [65] 이성은, “만성질환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경제활동참여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제1호, pp.234-262, 2012.
- [66] 이인숙, 김향숙, “어촌지역 노인들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1권, 제2호, pp.158-170, 2007.
- [67] 김소남, 이상복,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영적안녕, 사회적 지지, 생활만족도 및 우울의 관계”,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9권, 제2호, pp.196-204, 2013.
- [68] 성명숙, 송병선, “일 지역 농촌노인의 건강증진 행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기쁜간호학회지, 제11권, 제1호, pp.89-91, 2004.
- [69] 황은희, 신수진,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성생활과 삶의 만족도 간 관계”, 성인간호학회지, 제24권, 2호, pp.183-190, 2012.
- [70] 하경분, 송선희,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복지감과 의 관계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7호, pp.278-289, 2013.
- [71] 김은혜, 정진오, “리듬운동 복지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연령정체감과 심리적 행복감 간의 관계”, 한국리듬운동학회지, 제6권, 제1호, pp.1-12, 2013.
- [72] 윤명숙, 이묘숙, “노인의 경제상태가 행복에 미

- 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32권, 제2호, pp.397-413, 2012.
- [73] 서남숙, 정영혜, “일 농촌지역 노인의 성별, 운동 변화단계별 건강상태, 일상생활활동, 우울 및 생활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0권, 제2호, pp.169-178, 2009.
- [74] 이인정, “남녀노인의 우울, 삶의 만족에 대한 심리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의 차이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36권, pp.159-179, 2007.
- [75] 강희숙, 이진현, “농촌노인의 건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제21권, pp.51-64, 2007.
- [76] 김봉임, “재가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가간호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6권, 제4호, pp.415-423, 2005.
- [77] 오선영,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노인의 가족기능과 외로움”, 노인복지연구, 제42권, pp.267-290, 2008.
- [78] 이금룡, 박상욱, 유은경, “노년기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33권, 제2호, pp.365-379, 2013.
- [79] 정규형, 윤지희, 김종성, “노인의 인터넷활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4권, 제2호, pp.357-382, 2013.
- [80] 조혜숙, 최수일, “노년기 부부관계 요인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1호, pp.313-328, 2011.
- [81] 박영숙, “노인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제21권, pp.99-121, 2003.
- [82] 전혜원, “재가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생활만족도”, 한국생활환경학회지, 제18권, 제6호, pp.656-666, 2011.
- [83] 강이주, 이영애,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형태와 동거유형이 건강수준 및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9권, 제6호, pp.1031-1044, 2010.
- [84] 박성희, 이지현, “노인의 무력감,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65-73, 2006.
- [85] 신원우, “노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와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노인복지연구, 제54권, pp.135-163, 2011.
- [86] 조영권, 정영만,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와 생활만족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3권, 제1호, pp.695-704, 2008.
- [87] 이종운, 허만세, “청각장애노인의 사회적 고립감, 가족기능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1권, 제4호, pp.133-158, 2012.
- [88] 양옥남, “빈곤층의 재가복지서비스 만족수준에 따른 생활만족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22권, pp.5-32, 2005.
- [89] 정재훈, “노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요소”,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pp.93-100, 2013.
- [90] 최은영, 김지영, 김혜숙, “노인의 건강증진행위, 생활만족도 및 가족지지와의 관계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제5권, 제1호, pp.7-16, 2003.
- [91] 강선경, 김현진, “A Study of Impact of Social Activities and Religion/Spirituality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한국인구학, 제34권, 제2호, pp.163-190, 2011.
- [92] 이승신, “고령자의 노후준비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제15권, 제4호, pp.43-61, 2012.
- [93] 장숙희, “노인의 건강 상태, 사회적 지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제8권, 제1호, pp.36-46, 2006.
- [94] 이인숙, “노인의 재활보조기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사회복지정책, 제33권, pp.477-499, 2008.
- [95] 김춘미, 이홍자, “일개 지역 노인들의 성인식, 성생활 및 생활만족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1권, 제3호, pp.282-292, 2010.

[96] 박기남,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 차이”, 한국노년학, 제24권, 제3호, pp.13-29, 2004.

[97] 권철 외,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연구, 제32권, 제1호, pp.66-74, 2006.

[98] 최혜지, 이영분, “충주지역 고령인구의 사회·심리적 복지현황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17집, pp.77-98, 2005.

[99] 권은비, 이정화, “마을주민과의 관계가 농촌 단독가구 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2집, pp.89-113, 2012.

[100] 조계화, 김영경, “한국노인의 우울, 자살생각 및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76-187, 2008.

[101] 이신숙, 이경주, “노인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22권, 제1호, pp.1-20, 2002.

[102] 송미영, “남녀 장애인 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 비교분석”, 한국노년학, 제31권, 제1호, 143-155, 2011.

[103] 이신숙,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6권, 제2호, pp.35-58, 2011.

[104] 조광희, 정용준, 조영채, “일부 농촌지역 노인들의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에 관련된 요인”, 농촌의학지역보건, 제28권, 제2호, pp.71-85, 2003.

[105] 김철진, “종교생활의 효과가 노인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회, 제25권, 제1호, pp.281-301, 2011.

[106] 조공민, 김용섭, “농촌지역 후기노인의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0권, 제3호, pp.139-153, 2012.

[107] 김영범, 박준식, 이기원, “자녀와의 지원교환과 노인의 부양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18권, pp.47-65, 2008.

[108] 이가연, 배두이, “유료시설 노인의 입소동기 및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제24권, 제2호, pp.181-192, 2004.

[109] 서희숙, 송경애, 조명숙, “노인의 음주와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간호학회지, 제6권, 제1호, pp.115-124, 2004.

[110] 천의영, “일상생활수행능력, 자아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시력저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195-204, 2005.

[111] 정종현, 최수일, “노인의 성격특성이 자아존중감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제8호, pp.47-61, 2011.

[112] 김영길,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동서간호학연구지, 제14권, 제1호, pp.44-55, 2008.

[113] 김경동, 이은죽, 김여진, *사회조사연구방법: 사회연구의 논리와 기법*, 박영사, 2009.

[114] 장민선,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법제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18권, 제1호, pp.95-126, 2013.

[115] 석재은, “한국의 노령여성은 왜 특별히 가난한가?: OECD 국가들의 비교분석에 근거하여 노령효과인가 젠더효과인가”,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36권, pp.61-102, 2013.

저 자 소 개

김 여 진(Yojin Kim)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문학사)
- 1997년 5월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MSW)
- 2007년 12월 : University of Chicago(Ph.D.)

• 2009년 9월 ~ 현재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노인복지

임 연 옥(Yeon Ok Lim)

정회원



- 198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  
문방송학과(문학사)
  - 2000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문  
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문  
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년학